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손 동 유**·이 경 준***

서론 - 왜 마을공동체인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상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한 아카이브 모델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협력체계

결론

* 본 논문은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마을아카이브 연구 및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기록관리 컨설팅” 연구 내용의 일부를 논문요건에 맞추어 재작성한 것임.

**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 명지대 기록과학정보전문대학원 석사

[국문초록]

‘마을’은 공동체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마을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기획되고 실현되는 곳으로서 일하고 쉬고 즐기는 장인 일상생활의 토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와 개발독재로 대변되는 근현대시기를 거치면서 마을공동체는 대부분 해체되었다. 성장위주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개인주의, 상실감, 소외감 등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통하여 마을을 복원하고 이렇게 형성된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움직임이 각 마을과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마을공동체의 건강한 복원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마을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의 흔적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담는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사람과 사람관계는 물론이고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함께 담는 곳이기도 하다. 아카이브는 스스로의 역사를 기록하고, 서로 소통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주제, 대상기록의 특성, 목적, 지향 등 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모델로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다. 개별 마을공동체 보다는 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때 더 중요한 기능과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기록관리와는 다른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는 아카이브의 형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의 기능면에서도 수집, 정리, 분류, 평가, 관리, 활용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마을과 마을주민들의 규범과 지향 그리고 현실적 조건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개인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복원과 형성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적 모순에 대하여 아래로부터 극복하는 장이 될 것이다. 또한 기록 관리 영역에서는 기존 공공영역 중심의 기록관리를 민간영역으로 기계적으로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지평을 넓혀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주제어 : 마을, 마을기록,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라키비움

1. 서론 - 왜 마을공동체인가?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혈연이나 지연 또는 이해관계나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본적 사회집단으로 ‘공동사회’라고도 하며, 씨족이나 친족집단과 같은 혈연 씨족공동체, 마을이나 이웃집단과 같은 지연 촌락공동체, 예배결사나 동지적 결합 또는 친구집단과 같은 정신적 결사공동체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할 때 그 조직을 일컬으며, 단순한 결속보다는 더 질적으로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 상호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는 인간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실천에 참여하며, 상호간에 관계를 맺고, 도덕적 판단기준이 공유 또는 구축되는 장(場)이라는 것이다.¹⁾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1) Nisbet, R. A. "The Sociological Tradition", Heinemann Educational Book Ltd., 1967 ; 김미경·김영희·서동희,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체주의적 접근」, 『지방정부연구』 8(3),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p.308 재인용.

‘공동의 의식’을 의미하며, 이는 동질 사회의 평균적인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감정과 신념의 총체가 형성시키는 하나의 확고한 체계로서 규정되어 개별적인 개인의식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력을 가지는 것은 물론, 각 세대와 더불어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세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²⁾

그리고 공동체는 지역성, 도덕·정서적 통일체, 상징적 문화, 언어 범주, 사회 또는 경제 체계, 사회관계망 등의 다양한 기준과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조건인 지리적 영역, 공동체를 출현시키는 과정인 사회적 상호작용, 집단결속과 공유가치를 가져오는 심정적·상징적 공통 연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기도 한다.³⁾

한편, ‘마을’은 일반적으로 ‘동네’와 비슷한 개념으로 나와 내 이웃이 살고 있는 근처 지역을 일컬을 때 사용되어 왔다. 최근 ‘마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로 지칭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형성·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

나아가 ‘마을공동체’는 가장 작은 단위의 모듬살이로서 공동체문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급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치적이며 문화적으로 자족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자립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속

2) 한상복, 「한국인의 공동체의식」, 『정신문화연구』 12, 한국학중앙연구원, 1982, p.2.

3)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001, pp.22-27.

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262호, 2012.3.15. 제정]

가능한 공동체'라고 규정하며 미래 대안으로서 마을공동체에 주목하기도 한다.⁵⁾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서 시작되었는데 대체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중세적 개념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분열과 물질중심의 사회가 심화되고, 집단보다는 개인에 의존한 사회가 지속되는 경향에 대한 저항으로서 대두되었다.

19세기에는 현실비판과 이상적 가치의 강조, 건전한 사회의 청사진으로서 공동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표피적이고 단순·획일적 공동체의 이상적 속성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보다 분권적이고 영역화된 공동체에 대한 논의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21세기에는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사 협력체계를 이루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보편화 구상 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민관의 공동생산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공동체 확산 운동이 제시되고 있다.⁶⁾

나아가 바람직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그 장소의 역사와 특성,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던 도시공간이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담아내어 삶의 활기와 생기,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재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즉, 폐쇄성을 띄고 단혀있는 사적 공간의 무미건조한 집합체였던 도시공간을 이웃과의 소통과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공공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움직임과 실천

5) 임재해, 「공동체 문화로서 마을 민속문화의 공유 가치」, 『실천민속학연구』(11), 실천민속학회, 2008, p.109.

6) 강은숙, 「주민자치센터 평가와 지역공동체구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1(2), 2003 ; 김미경·김영희·서동희, 앞의 논문, 2004, p.309 재인용.

행위가 마을만들기 운동이라는 것이다.⁷⁾

이처럼 근대이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유지되었던, 지역을 토대로 한 정서의 공유와 구성원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등으로 대변되는 마을의 본질적 속성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변색되고 사라져간 현실에 비추어, 공동체의 바람직한 복원을 추구하는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현대사에서 급속하게 도시편중체제와 불균형적 산업구조가 만들어져 오는 동안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공동체가 빠르게 지속성을 잃어 왔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대안적 형태의 지역공동체조차 선례로서 확산되지 못하고 실험만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더욱 불투명한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진행되어온 공동체운동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형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참여’라는 유대의 과정을 통해 개인주의의 극복 및 사적이익을 초월한 자율성을 가져다줄 강력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창조적 합의에 의한 상호존중을 제1가치로 하여 사회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도 사회적 권력에 자유로이 자신의 권력을 결합시킴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⁸⁾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운동의 핵심인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담고,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맥락을 확보하고, 마을마다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기재로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징을 살펴

7) 김은희, 「나,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동네」, 『국토』 279, 국토연구원, 2005, p.127.

8) Barber, B. R.,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김동수,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28, 1994 ; 김미경·김영희·서동희, 앞의 논문, 2004, p.309 재인용.

보고,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 모델을 모색하고, 이들 아카이브가 어떠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상

1)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개념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란 마을의 역사,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과 집합적 공간을 동시에 의미한다. 즉, 마을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과 마을의 정체성을 밝히는 구심점으로 아카이브를 설정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활동의 흔적은 물론이고, 그 흔적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곳을 말한다. 다시 말해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모이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을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체계 및 시스템을 정착시켜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록학계의 연구 및 실천 활동은 국가기관의 기능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오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는 기업기록, NGO기록, 개인기록 등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행정기록 일변도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깨고 사회

전영역으로 기록관리의 지평을 넓혀내고자 하는 시도였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록화의 중요성에 착목한 연구 성과들이기도 하다.⁹⁾

특히,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세계 속의 모든 일상적 행위들과 그것과 관련된 기록들이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나 억압이 가해지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상 아카이브’가 가능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기록화를 통해 소외된 지역을 찾아내고 개선의 방향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의 아카이브로서, 일상의 아카이브는 오늘을 기록하는 방법론으로서 입체적인 서술이 가능하도록 근현대사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임은 물론, 기록을 생산하는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모두의’ 아카이브라는 특성상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을 매개함으로써 공동체의 재구성에 필연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그 수단으로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는 도시 개발과정에서 본래의 속성을 잃고 있는 마을의 원형을 복원하고, 주민의 생활상과 환경에 대한 기억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구성원의 소속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소멸이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2) 마을 아카이브의 특징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국가 주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소규모

9) 이영남, 「공동체 아카이브, 몇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호, 2012 ; 명지대학교 인간과기록연구단, 『일상아카이브의 발견』, 선인, 2012 등은 이와 관련한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이다.

읍면동에 이르는 중앙집중식 피라미드 구조의 단선적이고 일원화된 개념으로 이루어진 공공기록관리 체계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각 마을공동체의 개별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의 기록관리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창의적 개성을 인정하는 체계의 구상과 확립, 그에 적합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주류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기록학 기제, 즉 계층구조나 표준기술요소 등을 통해 공동체에 맞춤형 아카이브 구축을 시도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¹⁰⁾ 창조적이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야말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지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삶의 양태를 보여주는 일상의 소소한 기록이 아카이빙의 주를 이루는 만큼 기록을 평가하는 기준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 누구나 기록의 생산자이자 관리자, 이용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선별의 기준이 달라지고 아카이브의 기준과 지향점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기록이 궁극적으로 활용 단계에서의 가치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반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서는 아카이빙의 행위 과정 자체가 공동체의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러한 특징상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 마을 아카이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마을을 근간으로 하는 아카이브는 지역에 대한 아카이빙 역할과 함께 마을 주민들, 이웃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모습을 함께 아카이빙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가진다.¹¹⁾

10) 이경래, 「국내 마을아카이브 운동의 현 단계」, 부산대학교 SSK 로컬리티의 기록화 연구팀·명지대학교 인간과 기록화 연구단 공동세미나 ‘로컬리티와 로컬리티 기록화: 이론과 현장의 만남’, 2012, p.54.

11) 김화경,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2.

첫 번째로 지역 아카이빙은 그 마을만이 지닌 역사와 문화, 그 마을에서만 전해오는 풍습, 그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성과 관련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하는 기본기능을 바탕으로 지역민간의 소통과 커뮤니티에 복무하는 역할이다.

마을공동체 구성의 역사와 발전과정 속에서 축적되고 구전되어 내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을의 정체성과 역사를 밝히는 마을고유의 콘텐츠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마을공동체별 개별성과 특이성을 보여주며 마을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된 아카이브 소재이기도 하다.

두 번째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살고 있는 모습과 소통의 과정을 아카이빙하는 생활사 아카이브의 특성을 강조하는 역할이다. 마을이라는 유·무형의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소통되는 다양한 고민의 과정을 잘 보존하고 소통하는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록유형과 주요기능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서 대상으로 하는 마을기록은 마을공동체 자체와 마을 구성원 및 관련 인물과 단체가 생산하는 모든 유형의 기록이다. 마을기록의 생산을 위해서 별도의 행위 또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관련되고 마을 내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고민과 행위 및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기록은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특성, 지향, 구조의 개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으며 기록생산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마을기록의 유형 또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부산 산복도로 생활자료관(아카이브)의 경우처럼 문화, 장소, 생활, 인물, 역사 등의 주제를 기준으로 대상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기록 객체의

물리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²⁾

앞서 언급한 마을기록 생산주체의 다양화와 마을공동체별 특성화에 따른 다양한 상상력 속에서 마을기록의 유형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저마다의 기준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

마을기록의 경우는 일반적인 공공기록물의 유형과 달리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활동과 소통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모든 정보자료로 범위 확장할 수 있는데, 종이기반의 마을기록으로 문서, 포스터, 사진, 편지, 마을교육 교재, 반사회 출석부, 발표문, 성명서, 서명용지, 지역신문 등의 다양한 기록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마을공동체내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오래된 나무, 공공미술작가의 작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술기록 등의 모든 것들이 마을기록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매체도 포함된다.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디지털화 된 사진, 디지털 음성 및 영상, 온라인상의 문서, 홈페이지, 블로그 기록 등이 그것이다.

최근 서울시 마을공동체에서 다양한 사례로 구체화되고 있는 마을공동체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경우 기업의 운영 측면과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측면 등 다양한 의미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기업운영의 기획부터 운영, 회계 등의 기업운영 구조의 기본과정이 마을기록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같이 기록생산 주체와 기록유형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전제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본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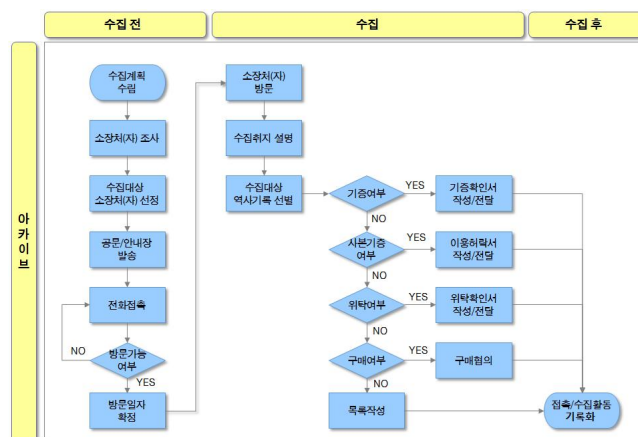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그 다양성과 창조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의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기록을 입수하여 관리하고 활용(서비스)하는 면에서 일반적인 아카이브와 다를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집, 분류/평가, 보존/관리, 활용 등의 일반적인 기능을 확보해야만 한다.

수집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개인 및 단체가 생산·보유한 기록 중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을 취득하는 업무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생산/수집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현실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여 내·외부에 산재해 있는 마을 또는 마을공동체 관련 기 생산 기록물을 수집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¹³⁾과 같은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설계한 뒤에 이를 응용하여 현실에 접목시켜 운용하자는 것이다. 각 단계는 언제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기증·위탁·구매 등의 경우에도 각각 소장자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등 현장 상황에서의 다양한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림 1> 기록 수집의 일반적인 절차



13) 이 그림은 아카이브센터(주)(<http://www.archivecenter.co.kr>) 에서 수행한 “범우 연합 기록물 정리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마을기록의 분류와 평가도 중요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능이다.

마을기록의 분류는 일반적인 분류의 개념¹⁴⁾을 기본골자로 하며,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특성과 구성원의 요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좋다. 특정한 정보전달 또는 논지를 펼치기 위하여 구축된 도서의 분류체계¹⁵⁾와는 달리 마을공동체의 공동활동 또는 마을살이 활동을 통해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기록자료를 분류하는 체계로 다양한 요구와 편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생산·수집된 마을기록을 모아놓고 분류를 하는 경우와 미리 분류를 설정하여 그에 따라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는 양자의 방법이 모두 가능한데, 기록의 주제, 형태, 시기, 위치 등 모든 영역이 분류체계에 개발되어 기록을 분류할 수 있다. 마을기록은 다양한 관점과 마을의 요구와 지향에 따라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초기단계에서 마을기록관리 주체들의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기반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집단의 협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기록의 평가는 일반적인 기록의 평가의 관점이 아닌 기록자체가 가진 의미와 중요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존과 활용의 가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평가의 주체는 아카이브 관리주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14) 일반적인 분류의 개념은 기록을 유사성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거나 배열하는 행위, 어떤 원칙·개념·목적에 따라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한 체계, 기록을 미리 고안된 체계에 따라 구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5) 한국에서 도서는 한국십진분류법을 사용한다. 한국십진분류법(韓國十進分類法, 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듀이십진분류법(DDC: Dewey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의 주류를 바탕으로 일본십진분류법(NDC)의 용어를 가져다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자료분류법이다. 모든 지식 분야를 총류(0), 철학(1), 종교(2), 사회과학(3), 자연과학(4), 기술과학(5), 예술(6), 언어(7), 문학(8), 역사(9) 따위 열 가지 주류(主類: section)로 가르고, 각 주류마다 다시 10가지로 나누어 강목(綱目: division)으로 구분한다. 총류에는 여러 주제를 포괄하거나 특정 주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이 속하여, 백과사전, 사전(辭典), 전집, 총서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마을기록을 생산과 공유와 활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요구와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과정과 결과도 마을공동체 구성원 등 다양한 이해집단과 공유되고 지속발전 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아카이브 운영위원회 등을 두어 마을 내 체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공식적인 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매체의 발달과 상용화로 인해 기록이 양적으로 팽대하고 다양하게 생산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공공기록 영역에서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보유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의 절감을 고민하는 것과 같은 접근 역시 마을공동체에서도 참고될 만한 요소이다.

마을기록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기록의 유지와 활용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아카이브의 기능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록은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보존환경과 관리환경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장비의 사용, 기록 매체별 형태에 따른 정리용품 적용, 서가배치, 적정 보존환경 유지 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마을기록의 경우는 마을내의 적절한 공간과 장비를 준비하는 데에 매우 큰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적합한 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시설과 장비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차차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현재의 소장되고 있는 위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을 통한 관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요기록에 대해서는 관내(시, 군, 구) 기록관과 협의하여 위탁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일상적으로 열람 및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평소 마

을에서 맺어진 사적인간관계와 공공의 목적을 띠고 관리되는 기록의 활용이라는 공적관계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적절한 활용정책과 방법의 원칙을 가지고 적용되어야 한다.

기록은 활용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잃는다. 다양한 구성원과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생산·수집된 마을기록은 그 의미와 지향을 모두 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마을기록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구성원들이 마을에 대한 애정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서는 주민편의에 입각하여 꾸준히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활용 프로그램은 전시와 콘텐츠 제작 등을 들지만, 부담해야할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마을기록의 주제와 내용을 조직하여 출판물, 이야기, 예술작품, 캐릭터, 영화, 연극 등 마을공동체에서 평소에 진행하는 다양한 마을활동에 접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마을공동체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본적인면서도 다양할 수 있는 기능을 전제로 다음 장에서는 실현가능한 몇 가지 아카이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한 아카이브 모델

1) 도서관을 활용한 모델

도서관을 활용한 모델은 아카이브의 유연한 운영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형태 중의 하나이다.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아카이브는 기존

도서관 기능의 범주에 아카이브를 포함시킴으로써 도서관의 기본활동·서비스 영역의 확장을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도서관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및 그 구성원들과 연계 및 관계의 방식을 활용하여 아카이브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도서관과 기록관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한 선행연구¹⁶⁾에 따르면 세계사적으로 초창기 형태의 도서관은 문헌도서뿐만 아니라 각종 문서기록과 도면, 박물 등 여러 기록 자료의 범주를 아우르는 등 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겸비함으로써 종합적 지식정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이 알려져 있다.¹⁷⁾

그러나 근대로 진입하면서 문헌도서의 양만큼이나 각종 기록의 규모 또한 방대해짐에 따라 공문서를 별도로 보존·관리하는 근대적 기록관체제로 재편되면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역할 기능이 나누어지기 시작하였고, 기록물의 고유한 성격과 기록관의 사회적 기능을 반영한 기록관리 이론과 실무, 시스템체계가 독자적으로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도서관과 기록관이 별개의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인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지식정보의 범주를 넘어 인간의 지식·활동의 정보를 담는 전달매체가 급속도로 다양화됨에 따라, ‘문화유산기관(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기억기관(memory

16) 서혜란,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방안 모색」, 『한국비블리아 발표논문집』 13, 한국비블리아학회, 2005, p.113.

17) 초기 기억의 유산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사회적, 지적, 예술적, 정신적 성취의 증거와 유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공통의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Dupont, Christian.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esting Mission, Converging Futures?”, *A Journal of Rare Books, Manuscripts, and Cultural Heritage*, 8(1), 2007, pp.13~19.

김유승,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한국기록관리학회, 2012, p.96 재인용.

institutions)’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도서관과 기록관이 그 기능적·사회적 동질성을 매개로 근대 이전의 형태처럼 상호협력하고 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도서관과 기록관은 정보통신 인프라에서의 하드웨어적 발전 속도에 비해 콘텐츠서비스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오랜 역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축적된 역량이 더 많은 도서관 역시 시대적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해나가는 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는 자료수집 및 열람이라는 기본적 역할과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식과 문화의 장으로서 지역적 거점 기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책무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근 공공도서관이 문화 중심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민을 통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초석으로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¹⁹⁾ 공감대 형성의 과정 중에 있기도 한데, 이용자정보서비스 요구에 대한 능동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거점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기반을 둔 지역의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한 도서관 기능의 확장은 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서관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각각 설립 배경과 현재적 기능을 기준으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김정희, 「사회적 패러다임에 따른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19) 황동렬, 「U-도서관/박물관의 기능변화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한국문헌정보학회, 2008, p.182.

① 마을도서관 모델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 지역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마을도서관은 책을 통하여 주민구성원의 방문을 유도하고 다양한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며 주민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기도 하는 등 공동체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작은도서관’으로 일컫는 소단위 지역거점의 도서관 운영사업은 1960년대 마을문고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시민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마을마다 부족한 도서관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작된 풀뿌리 시민운동이자 대안 공동체 운동이기도 하다.²⁰⁾

마을도서관이 소단위 주민 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부모, 특히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의 학습공간으로 이용되고, 어머니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 다수 주민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발맞추어 최근 아카이브의 관심은 대중의 일상과 공동체, 지역의 기록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서, 기록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문화적이고 역사적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때, 기관의 경제적 효율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가치를 넘어 포괄적인 사회 전반의 시대적 가치를 고려하는 ‘다원화된 기록관리 운동’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가 민간기록관리 분야에서 주목·논의되기 시작하였다.²¹⁾

마을공동체가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생산하고 관리함으로써 얻는 중

20) 대안공동체 운동은 문제의식 속에서 사람이 가진 내면의 힘을 스스로 펼쳐냄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새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의 생활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유기적 ‘연결망’을 중시하며, 기존의 중앙집권적 조직 및 운동의 형식을 거부하고 ‘분권과 자치’를 중시하는 등의 주요한 특성들을 갖는다.

박미라·이응봉,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 p.123.

강수돌, 「대안공동체 운동의 평가와 전망」, 『진보평론』 32, 2007.

21)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호, 한국기록학회, 2012, pp.5-6.

요한 의의가 비정형적 민간기록의 다양한 특성들이 반영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마을도서관을 활용하여 공동체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은 기록의 본질적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여, 기록의 생산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의미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기도 한 것이다.²²⁾

이처럼 공동체 스스로 아카이브를 만들고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지나온 역사를 물리적 실체로서 형상화하고, 앞으로의 역사에 대해 지속적인 축적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할 실체적 상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카이브에 참여하고 이용하고 일상 속으로 받아들이는 구성원들 삶 속에 자리 잡을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²³⁾

이러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로는 ‘밝고 맑은’ 사례를 지향하는 생태공동체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 밝맑도서관²⁴⁾을 들 수 있다. 마을공동체

22) 정부기관의 민간기록 수집·관리는 대체로 특정 정책과 이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수집의 차원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곧 수집에 앞서 의도적으로 편향된 전략을 수립하고 입맛에 맞는 기록만으로 구성하여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정부정책 호응식의 민간기록 수집을 이벤트화 하여 기획했던 사례는 객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호, 한국기록학회, 2011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23) 윤은하(2012)는 또한 공동체아카이브가 현실적으로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주민 구성원의 정체성 확립에 일조하여 사회를 변화시켜나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60년대 영국사회의 흑인공동체가 주류교육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곤 하는 차별적 실상에 분노하여 보조학교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교육하고 아카이브를 만들기 시작함으로써 흑인인권운동의 성장과 궤를 같이 했던 사례, 1977년 캐나다의 성소수자 아카이브(The Canadian Lesbian and Gay Archives, CLGA)가 정부에 의해 급습당한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등 아카이브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되었던 사례 등,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자발적 노력과 의지 여하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낼 힘이 있음은 물론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서 마을아르페(communit archpe)²⁵⁾ 개념은 이영남에 의해 제안된 바 있는데, 이러한 아르페 개념을 통해 마을도서관, 마을아카이브, 마을역사관, 마을치유센터, 마을창업센터 등이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표 1> 홍동밖매퍼도서관 구조 및 프로그램

구분	내용
건물	홍동밖매퍼도서관의 배치구도 - 1층: 어린이방, 열람실, 카페 - 2층: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매퍼문고, 장서열람실 - 3층: 뿌리독서모임방
프로그램	매퍼도서관(1층~3층 전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아르페 프로그램의 경우: - 아카이브 프로그램 / 지역기록 아카이빙 / 아카이브 워크숍 - 역사 프로그램 / 자기역사쓰기 프로그램 / 풀무학교역사쓰기 지역역사쓰기 프로그램 뿌리독서모임 - 농민교양국어: 생각하는 농민이 되기 위한 인문교양모임/주민참여 - 고전문학반: 1963년 풀무학교 무교회집회 후 교사,학생이 시작 - 어머니 목요독서모임: 1980년대 후반, 풀무학교 여성교사, 지역 여성들이 성서잡지를 읽고 생각을 나누는 모임으로 시작

내용출처: 이영남, “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아카이브 - 도서관 차원의 ‘기록, 기억, 그리고 커뮤니티’”, 느티나무도서관 재단, 느티나무도서관 인문학강좌자료, 2012.

24) 홍동밖매퍼도서관은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에 자리한 마을도서관이다. 생태적 대안교육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갯골생태농업연구소, 풀무생협, 유기농영농조합 등이 어우러져 운영되고 있는 생태공동체 홍동마을은 마을공동체에 도서관이 거점공간으로서 자리해야 한다는 풀무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지난 2011년 개관하였다.

25) ‘archpe’는 arche(지휘하다, 통솔하다)와 pe(토양)의 합성어로서 ‘마을아르페’는 마을의 중심적 위치에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곳, 즉 일종의 ‘복합문화공간’, ‘커뮤니티센터’를 의미한다. 이영남,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기록학연구』 18호, 한국기록학회, 2008, pp.225-226.

밖밖도서관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 마을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강좌 및 모임을 통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기록이 자연스럽게 생산·수집되기도 하지만, 아르페 프로그램과 같이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찾고 공동체의식의 고취를 돕기 위한 기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가치 있는 공동체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해 나갈 수도 있다.

②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모델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문화정책을 세우고, 지역사회·문화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지식정보를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또한, 자료이용중심의 정보서비스라는 본질적 기능 외에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수집하여 보존하며, 그 이용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역할 또한 공공도서관으로서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지의 도서관들은 일차적으로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등 평생교육 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²⁶⁾

각종 도서·문헌, 간행물, 시청각물, 뉴미디어콘텐츠 등 다양한 지식정보를 망라하여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 보존·관리하여 서비스하기에 최적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양상은 라키비움(larchiveum)개념²⁷⁾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조

26) 김홍렬,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4, pp.2-3.

27)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 기능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제

직기능의 기계적 통합에 그치는 개념이 아닌, 세계적 추세에 따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각 기능의 유기적 결합 형태로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의 통합수행, 통합서비스의 형태를 취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전국 범위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록서비스 기능의 기능적, 조직적, 공간적 통합을 모색하여 문헌, 기록자료, 시청각물, 박물관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관리·전시·서비스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진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도서관은 인문학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기록정보가 마을공동체의 독자적인 지적(知的)자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을 비롯한 활동가, 연구자그룹 등 다양한 기록정보 수요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키비움과 관련된 내용은 캐나다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자국의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여 모든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형태의 지식정보자원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수행하고자 캐나다국립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Canada)과 캐나다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anada)을 통합하여, 캐나다국립도서관아카이브즈(LAC Library and Archives Canada)를 구축하였다.

출판, 기록물, 시청각자료, 사진, 예술품과 함께 웹사이트와 같은 전자문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소장하고 통합정보서비스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관통합을 통해 라키비움 구현에 성공한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의 사례를 비롯해서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한 독일의 BAM-Portal (Portal zu Bibliotheken Archiven Museen), 박물관과 기록관을 통합한 중

시된 합성어로서 뉴미디어 시대 흐름에 맞춰 문헌도서, 문서기록, 시청각자료, 박물관 등 모든 다양한 형태의 정보콘텐츠를 보존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개념. 한 사회의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의 동질적 속성을 매개로 개념 제시되어 캐나다, 독일, 미국, 덴마크, 뉴질랜드 등지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통합·협력모델이 구현, 운영되고 있다.

국의 대련시(大連市) 당안관 등 다수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제적 구축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는 라키비움의 미래적 가치에 주목하는 폭넓은 연구 성과들이 매우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²⁸⁾ 다시 말해, 지식·정보·자원의 관점에서 관리의 효율화 및 서비스 통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 기능의 통합은 서비스와 보존·관리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발전적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도서관과 아카이브는 서로 다른 학문적 기반을 통해 성장해 왔고, 기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기대에도 차이가 있고, 소장물에 대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서로가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해 온 만큼 선불리 기능 통합을 강제할 경우 이용자의 신뢰를 잃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²⁹⁾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을 기반으로 대내외적 비전의 공유, 다양한 지원경로의 확보 등이 협력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기능의 기관이 공생·협력하는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연속 과정 및 절차는 다섯 단계 과정으로 정리해서 볼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사전계획, 계획, 실행, 평가, 경험의 공유 등으로 다시 세분화된 실행계획을 세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⁰⁾

28) 김유승,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한국기록관리학회, 2012, p.95.

29) Doucet, Michelle. "Library and Archives Canada: A Case Study of a National Library, Archives, and Museum Merger", A Journal of Rare Books, Manuscripts, and Cultural Heritage, 8(1), 2007, pp.65. ; 김유승, 앞의 논문, 2012, p.98 재인용.

30) Waibel, Günter and Erway, Ricky, "Think global, act locally: library, archive and museum collaboration.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4(4), 2009. Zorich, Diane, Waibel, Günter, and Erway, Ricky. "Beyond the Silos of the LAMs: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Report produced by OCLC Research. 2008. [cited 2012.4.7.]: <http://www.oclc.org/research/publications/library/2008/2008-05.pdf>
김유승, 앞의 논문, 2012, p.99 재인용.

<표 2> 협력연속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

단계	설명
교신/만남	대화를 나누고, 활동과 요구에서의 공통점을 발견하며 협력 기능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제휴	소규모의 협력을 위한 비공식적 활동의 전개
조정	일정, 인력활용계획 등 활동의 세부사항을 조직
협력	상호 정보와 자원의 교류, 통합기관의 가치와 이점을 새롭게 형성하는 단계
컨버전스	협력이 광범위해지고 일상화되어 신뢰 가능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인식 단계

내용출처: 김유승, 「국회 리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한국기록관리학회, 2012, p.99.

2) 마을신문을 활용한 모델

마을신문을 활용하는 모델은 마을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아카이브와 접목시키는 방식의 접근으로 고민되고 있는 유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는 마을이 단순 주거와 일터, 유희의 공간 등으로 분리되어 반복적 일상이 강요되고, 개인과 가족 단위로 파편화되는 등 폐쇄적 구조가 심화되는 것에 대항하여 사람 사이의 소통과 관계맺기의 방안, 즉 마을 만들기 운동의 한 갈래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마을신문은 소통의 기재로서 소식의 전파와 공유라는 수단을 통해 이웃 간의 발길이 뜸했던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면서 소소한 일상의 공유를 통해 동류의식을 형성하여 주민 각자에게 공동체의식을 부여하고 스스로 공동체의 역사를 만들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평화동 마을신문³¹⁾의 경우, 전주시 외곽의 변두리지역인 평

화동에서 1990년대 재개발의 여파로 토착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지역공동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아파트 입주민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약자인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웃한 단지의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소통부재, 갈등상황이 생겨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추진되었다.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체 복원에 나서게 되면서 ‘평화동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교육, 복지일꾼양성, 소식지발행, 지역사회조사, 토론회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신문의 창간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다.

모집된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실시 후 배출된 주민기자들과 편집기획위원회가 함께 모여 마을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은 신문제작을 하게 된 것이다.

<표 3> 전주시 평화동 마을신문 제작 인력 구성

구성원	구성방법
주민기자단	공개모집 후 기자학교를 수료한 주민들로 구성됨 주부, 시민단체 실무자, 직장인 등
편집기획위원회	기자단의 취재와 기사작성 지원, 신문편집 담당 교사, 시민단체 임원, 기자단대표, 타신문사 기자, 복지관직원 등으로 구성
발행위원회	지역사회지도자, 의료인, 교육자 등
배급소 네트워크	신문배포에 동의하는 가게,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

31) 권태정, 「작은 시작, 평화동 마을신문 창간」, 『열린전북』 제8호, 2010.

<그림 2> 평화동 마을신문, 마을신문 도봉N 인쇄면



이미지출처: 평화동 마을신문 온라인카페 (<http://cafe.daum.net/ph-news/>)

마을신문 도봉N 블로그 (<http://www.dobongn.kr/>)

서울의 마을신문 도봉N³²⁾의 경우는 도봉시민회, 동북여성민우회, 한살림, 방학골복지관, 도봉지역자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활동이 활발한 도봉구를 거점으로 하여 2009년 초 활동가들의 의기투합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신문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월 1만 2,000부 발행, 창간 이래로 3년간 31호에 이르기까지 14인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 의해 취재와 기사작성, 신문제작이 이루어지며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 무료배포, 광고판매 및 후원, 자원봉사 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봉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일상적 이야기, 마을 행사, 지역 사회 이슈 등을 담는 것은 물론, 다양한 행사주최 및 미디어강좌 개설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전체로 공동체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매

32) 오마이뉴스, “마을의 귀환 20 - 도봉구 사람들을 연결하는 마을신문 <도봉N>”, http://www.ohmynews.com/NWS_View/at_pg.aspx?CNTN_CD=A000179482520 12.10.30. 도봉N은 도봉뉴스, 도봉네트워크 등을 의미함.

체로서의 힘을 축적·유지해 오고 있다.

신문은 기사에는 주민자치, 지역 동호회, 이벤트, 구성원의 대소사, 마을경제 등 마을공동체의 일상적인 기록이 콘텐츠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사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사콘텐츠 외에도 취재원정보, 사진, 메모, 기획아이디어, 녹취록, 영상 등 기획·취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산출물들이 기록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며, 마을신문 주관으로 각종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기획함으로써 공동체 기록을 생산·수집하는 허브로서 기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마을신문을 기획하고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관련 활동을 축적해 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아카이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문발행 업무의 속성상 정보자료의 축적이 전자화 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만큼 온라인공간에서의 서비스 활성화 및 향후 마을신문 주체들 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도 구상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통합 서비스 모델의 전형을 마련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소통·치유형 모델

소통과 치유를 추구하는 아카이브의 모델은 아카이브활동의 효과와 목적면에서 접근한 하나의 유형으로 사람들 간의 소통과 치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공동체아카이브를 계획해 볼 수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일상적 생활세계 속에서 단지 물질적 풍요로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상태 또는 욕망과 욕구를 만족시킬만한 수단자체가 박탈되거나 제거된 상태로부터의 결핍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³³⁾

33) 일상을 억압하는 '체제적 규율'과 '제도적 폭력' 앞에 인간의 조건은 왜곡되고 결

사회적 모순과 소속감의 부재로 인해 자아상실감과 함께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과 소외로 인한 고통은 인간을 왜곡된 삶으로 이끌게 되며, 상실감의 해소를 위해 욕망하는 모든 시도들은 오히려 공허감을 키우고 소외를 가속화시켜 정신적 나락으로 빠져들도록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대인이 안고 있는 ‘실존적 고립감’ 문제의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된 바 있는데,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해법은 새로운 연대의 기초로서 그가 제시한 ‘친밀감’은 공적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과 완전히 상응하는 방식으로 개인 간의 상호작용 영역이 전면적으로 민주화됨을 함축하는 개념으로서, 타자(他者)와 공감하는 마음의 기본토대로서의 친밀한 유대관계, 감정적 교류를 의미한다.³⁴⁾

이에 더 나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대된 관계의 장, 타자와의 관계 영역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우리시대 해방적 연대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유기적 연대를 통한 자율적이며 자기결정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는 대안적 활동의 하나로서, ‘침묵’과 ‘무관심’을 ‘돌아봄’으로 전환하여 ‘관심’을 보이는 순간 잊었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물론, 타자의 가치를 재고하도록 한다는 연구성고가 제시되었다.³⁵⁾

이러한 배경에서 자기 역사, 가족사의 기록화를 마을공동체 내에서 진행하고, 이를 소통하는 방법으로 문서화, 시각화, 구술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 기록을 공동체 구성원 간에 아카이브로써 공유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상실감과 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핍을 느낀다. 김경호, 「결핍과 치유」, 『인문과학연구』 28,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338 ; 김혜숙 외, 『인간관계론』, 양서원, 2001, p.298, 재인용.
34) Anthony Giddens, 배은경 외 옮김,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7, p.27~28, ; 김경호, 앞의 논문, 2011, p.352 재인용.
35) 김경호, 위의 논문, 2011.

실제로 구술사 인터뷰 및 기록화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술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주며 억압되어 있었던, 고통으로 침묵하고 있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한다.³⁶⁾

말하는 이는 물론이고 듣는 이까지, 기록의 생산자는 물론이고 기록을 활용하는 사람까지, 기록을 매개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간접 치유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지향하는 사람 사이 관계 복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복합문화공간, 실버카페, 청소년센터, 주부문화교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 역할과 기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통·치유의 공간은 세대와 계층별로 적절하게 역할 분담된 준비된 활동가들에 의해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공동체 내 노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활동의 장,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 구심점으로서 기능이 가능한 ‘실버카페’³⁷⁾에서는 소통·치유의 공간의 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통해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다음 세대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전달할 길잡이로서 노인들이 풀어놓는 자신과 가족, 마을의 이야기로 마을과 주민의 역사 아카이브를 구성함으로써 세대간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청소년센터, 주부문화교실 등 세대별·계층별 특화된 공간에서 자기

36) 윤택림, 「구술사 인터뷰와 역사적 상흔」, 『인문과학연구』 30,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383.

37) 실버카페는 노인들이 카페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노인바리스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을 기본으로 지역주민에게 휴게쉼터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층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설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차를 마시는 ‘카페’ 공간일 필요는 없고 기능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쓰기, 가족사쓰기, 자기역사 말하기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집된 일상의 이야기는 세대별·계층별 고민의 지점, 행복지수, 일상적 가치, 생활패턴, 유행, 습속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이야기로서 소통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치유의 장(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구술 프로젝트 ‘StoryCorps’³⁸⁾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StoryCorps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약 8만여 명의 참가자로부터 4만 건에 이르는 인터뷰를 구술채록, 보존해온 구술채록 프로젝트로서, 미국인의 삶의 이야기를 보존, 기록하며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수집된 기록은 미 의회도서관 ‘Folklife Center’에 보존되고 있다.

<그림 3> StoryCorps 공식웹사이트 메인페이지와 구술인터뷰 공간, 진행모습



이미지출처: StoryCorps 공식웹사이트 (<http://storycorps.org/>)

38) 이경준, 「일상 아카이브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p.34-35.

이들의 구술채록 방법은 구술자가 방문하는 방법, 구술자에게 방문하는 방법, 장비를 대여하는 방법, 구술자가 자체 제작하는 방법 등 이용자(구술자)편의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확보된 구술기록을 통해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물론, 채록된 인터뷰는 NPR 방송의 금요일자 'Morning Edition'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고 공식웹사이트, 팟캐스트 등을 통해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이 발간한 책 『고마워요, 엄마』(2011, 돈을 새김)에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

<표 4> 구술채록 방법

방식	내용
구술자가 방문하여 구술	함께 구술을 진행하고픈 가족, 친구, 지인을 미리 앞서 섭외 후 방문예약, 사전질의서를 토대로 구술내용을 준비하여 당일 녹음실을 방문,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 약 40여 분에 걸친 구술 세션을 진행함 과정이 종료된 이후 기록이 담긴 CD를 수령, 복사본은 미 의회도서관 Folklife Center로 이관됨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됨
직접 구술채록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DIY Instruction Guide를 다운로드받아 절차 및 질문사례, 녹음·녹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에 대한 정보를 사전 숙지한 후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구술채록을 진행하는 것으로 완료됨
StoryKit 장비대여	StoryKit 대여를 요청하면 스튜디오 수준의 장비를 활용한 40분 분량의 2~4개 세션의 인터뷰 채록이 가능함. 장비반납과 함께 CD를 수령하고 해당기록은 Folklife Center로 이관
Door-to-Door 서비스	기관 및 단체의 경우 40분 단위의 인터뷰 총 16세션에 대해 지원가능, 예약신청 접수에 따라 스태프가 방문하여 세션을 진행

4) 예술기록 아카이브 모델

예술기록 아카이브 모델의 대상기록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모델이다. 특히 예술활동과 관련해서는 기존 아카이브에서 고민되어 온 개념적 틀을 완전히 새롭게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술기록은 창작 준비단계, 창작 단계, 감상 및 감상 후 단계에서 다양한 기록이 만들어진다. 작가의 기획을 담은 작품노트, 창작 활동을 담은 기록, 공연·제작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과 창작자 및 창작단체로부터 생산·수집한 기록, 홍보와 비평, 언론보도, 학술자료 기록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³⁹⁾

한편, 특정 예술 활동을 통해 생성된 원형적 지식의 축적을 예술 아카이브로서 지칭하며, 예술기록물의 특성상 비조직적이며, 현장성이 강해 휘발되기 쉬우며, 창작과정에 다양한 조직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행위 및 공간이 대상기록이 되기도 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⁴⁰⁾

이러한 독자적 특성에 따라 공연·시각예술 분야에서의 창작물과 정보자료 등을 기록화, 아카이브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와 시도들이 현재 여러 곳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예술아카이브 경우 현재까지는 기관⁴¹⁾이 주체가 된 수집·보존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수집의 통로와 네트워크 협력체계, 유형별 분류체계 수립, 서비스 등이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39) 김승아, 「국내 예술아카이브의 현황과 표준체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발표논문집』, 한국비블리아학회, 2012, p.144.

40) 박주석, 「시각예술의 제도와 기록」, 『예술기록관리전문가 양성과정 강의교재』, 국립예술자료원, 2011.

41) 국립예술자료원,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국악원, 부산문화재단 등이 대표적으로 예술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주체이다.

예술기록관리에서 중요하게 짚어 볼 사안은 예술기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 예술작품 활동의 프로세스 분석으로 영역별로 수집해야 할 기록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이다.⁴²⁾

이와 더불어 공공미술은 미적가치에 우선순위를 둔 조형, 회화 등의 전형성을 넘어 포스터, 빌보드 및 사인보드 디자인, 스트리트 퍼니처, 사진과 영상미디어 작업, 인터넷공간의 쌍방향 소통, 퍼포먼스, 지역민과의 협업을 통한 워크숍 또는 프로젝트, 아마추어 창작,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고정된 정의를 벗어나 명확한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 대상과 수단, 매체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현실 사회적 기능을 갖고 공적 영역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관계 맺는 미술”이라는 일관된 전제로서 대항문화적·행동주의적 성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⁴³⁾

이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마을과 동네, 이웃과 지역사회, 도시 문제와 맞닿아 도시와 전국의 지리적 여건과 정서적 연대를 취하는 등 자발적 대중과 만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개입하고 지역적 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어오고 있다.⁴⁴⁾

따라서 예술기록의 경우 작품이라는 결과물만을 아카이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기획과 의도, 창작과정, 감상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 등이 함께 아카이빙 되어야 하기에, 기존의 보존관리 중심의 정적인 패러다임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창작이 이루어지는 공간

42) 설문원,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한국기록관리학회, 2011, p.218 ; 박주석, 「예술기록의 특징」, 『예술기록관리전문가 양성과정 강의교재』, 국립예술자료원, 2011 ; 손동유, 「예술기록 수집전략과 평가기준」, 『예술기록관리전문가 양성과정 강의교재』, 국립예술자료원, 2011, 등 참고.

43) 강수미, 「공동체를 위한 예술과 공공미술」, 『현대미술학 논문집』(12), 현대미술학회, 2008, p.10, 12.

44) 박신의, 「예술가의 도시 내 화학반응 일으키기」, 『건축』 56(1), 대한건축학회, 2012, p.33.

혹은 지역을 아카이브로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 문래동 예술창작촌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 정착한 작가들은 지역과 주민과 주민들의 삶을 작품에 담고자 하였고 주민은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서서히 예술적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여 예술가의 작품이 공동체의 기억을 표상하는 ‘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근래에 조성이 시작된 ‘문래도시텃밭’은 예술가와 노동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형성, 텃밭을 구심점으로 모인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 맺기와 소통의 채널을 이끌어내고 있다.

공동체예술 아카이브로서 ‘문래아트아카이브’⁴⁵⁾는 영상, 사진, 일러스트, 회화, 조각,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자료를 모아 전시하는 공간으로서 복합문화전시공간 ‘숨씨’의 2층에 자리하며 문래동의 예술기록 아카이브로서 운영되고 있다.

<그림 4> 2012 문래아트아카이브전 포스터 및 전시아카이브 공간 ‘숨씨’



이미지출처: “숨씨Cottonseed”의 블로그 (<http://cottonseed33.blog.me/>)

45) 문래동 예술창작촌 전시공간 “숨씨Cottonseed”의 블로그:
<http://cottonseed33.blog.me/>.

여기에서는 2010년부터 <문래아트아카이브展>을 시작하여 문래동 작가들의 작품을 해마다 소개하고 ‘문래아트아카이브’에 작품을 수집, 보관하도록 하는, 작가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문래예술창작촌의 연례 전시행사, 참여 작가의 작품 및 포트폴리오를 수집, 보관, 소개하며 외부 미술계,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예술기록 아카이브의 핵심적 고민은 생각과 행위와 장소를 아카이빙하는 데 있다. 유형의 기록이 아닌 무형의 기록을 어떻게 아카이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많은 마을공동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드시 예술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체마다의 다양한 일상활동을 어떻게 기록화 할 것인가의 차원에서도 예술기록 아카이브의 모델은 유용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소수자 공동체 아카이브 모델⁴⁶⁾

소수자 공동체 아카이브의 모델은 아카이브의 주체와 관련된 접근이다.⁴⁷⁾ 사회적 약자의 경우 역사적으로 신분상승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했지만 소위 ‘운명’과 ‘팔자’라는 위안으로 차별을 받아들이는 정서가 보편적이었던 전근대에 비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욕망의 수준은 높아졌으나 구조적 불평등과 제약에 좌초함으로써 좌절과 불안의 강도는 오히려 더욱 높아진 것이 현재의 사정이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46) 소수자의 경우 ‘마을’이 내포하고 있는 물리적 지역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공동체’로서의 현재적 의미는 어느 때보다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고, 마을공동체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 포함하고자 한다.

47) 주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버카페도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유형별 분류보다는 다양한 기준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추후 공동체아카이브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유형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의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소개됨으로써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는 마치 무능력과 게으름, 실패자의 표상으로 남게끔 선동하는 집단적 배제·소외의 매커니즘이 보편화된 측면이 있다.⁴⁸⁾

이러한 소외와 차별은 경제적 상황, 노동생산성, 인종, 종교, 성적체성 등 사회적으로 평균적으로 용인되는 가치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시 이루어지게 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구조적 배제와 억압의 구조는 강화되어 오고 있는 형편이다.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보편’이라는 관념적 주류질서가 강요되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 장애인, 저학력자, 노인, 성소수자, 이혼가정(특히 여성), 인종과 경제적 능력 등 복합적 잣대에 의해 차별받는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이 소수자집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소수자공동체 스스로의 삶과 일상을 그대로 남기고 공유하고 보존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서술해 나가는 것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재고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노력이며, 이들의 공동체아카이브의 구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는 전체주민의 80%가 넘는 이주민 정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안산의 원곡동 지역에 예술가, 시민활동가, 노동자, 이주민이 함께 모여 운영하는 공동체 공간이다. 다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크로스오버 문화적 변용의 프로그램 기획, 예술가와 지역공동체의 유대로부터 출발한 창조적 실험, 마을축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소수자 통합 프로그램, 세미나·강연, 출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⁴⁹⁾

퀴어락(KoreaQueerArchive)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주관으로 성소수자의 역사·문화·사회적 기록들을 수집, 정리하여 온·오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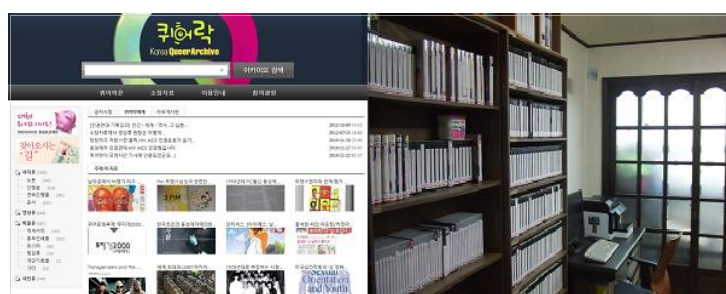
48) 박경태, 「누가 이들을 밀어내는가」,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001, p.24.

49)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 공식웹사이트: <http://litmus.cc/>

상으로 공유, 검색,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영리 공공아카이브로서 구축, 성소수자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편견을 깨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로서, 연구자에게는 성소수자 정보를 지원하고 활동가에게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지향하고 있다.⁵⁰⁾

기록물관리정책, 수집·기증정책, 내규 및 실무자지침, 퀴어락규정 등을 정책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며 현재 약 2,000권의 문서·도서·간행물과 620건의 영상류, 580여건의 박물류, 750여건의 사진류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검색 후 오프라인 방문 및 열람·활용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5> 퀴어락 공식웹사이트 및 아카이브 공간



이미지출처: 퀴어락 웹사이트 (<http://queerarchive.org/>)

이러한 사례들은 장차 사회적 소수자들의 공동체아카이브 활성화 과정에서 주요하게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아카이브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중심의 아카이브를 구상할 때, 유용한 참고대상이 될 수 있다. 마을내의 구직자 공동체, 소상공인 공동체, 전업주부

50) 퀴어락 공식웹사이트: <http://queerarchive.org/>

(혹은 남편)공동체, 홈스쿨링 가정 등 크고 작은 주체별 아카이브도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 과정에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협력체계

1) 네트워크 체계로의 진화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핵심은 소통·참여형 아카이브라는 점이다. 기록을 만들거나 만들어지는 전단계에서부터 이들을 수집하고 정리, 분류하고 보존, 관리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단계가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접근성 확대와 이용 편리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의 유용성 등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우리사회가 디지털사회로 변화하는 중심에는 창의성과 상호소통성이 핵심문제로 부각되어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역할기능으로서 모든 이용자들이 여가 활용과 학습활동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대중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문화의 총체성을 지향하는 열린 공간, 확대된 기구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⁵¹⁾

이미 생활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양한 컴퓨팅 기기를 통해 연결되고 공유되며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실제 구현되어 가고 있고 보편화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아카이브가 구축, 운영되는 환경 또한 이러한 변화를 맞아 온오프라

51) 황동렬, 「U-도서관/박물관의 기능변화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한국문헌정보학회, 2007, p.183.

인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독자적 개별컴퓨팅(stand alone)에서 네트워킹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 인터넷 콘텐츠의 집적으로 인한 가상공간의 창출, 최종적으로 물리적 공간, 가상공간이 융합된 제3공간의 탄생으로 압축적으로 설명된다.⁵²⁾

다시 말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과정은 정보통신 기술의 진화 과정과 유사하게 1단계의 각 마을공동체 개별 구축의 과정을 거쳐 2단계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향후 콘텐츠 통합서비스에 이어 궁극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구성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2) 아카이브를 작고, 많게, 긴밀하게

민간부문 기록관리의 발전은 기업과 대학, NGO, 언론·정치, 종교, 예술, 노동, 여성, 스포츠 등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가 만들어지고 이들의 연대가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며, 민주적 가치가 후퇴 일로에 있는 현 상황에서 기록·아카이브 문화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⁵³⁾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개인 및 단체가 일정한 조직체계를 이루어 현 기록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마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 기반의 아카이브가 씨줄날줄로 엮여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 공간으로서, 또한 아카이브문화가 전파되는 하부구조로서 토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52) 하원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 『전자공학회지 30(11)』, 대한전자공학회, 2003.

53) 박건홍,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기록학연구』 22호, 2009, 한국기록학회, pp.25-26.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일상아카이브(everyday life archives)는 현대사회의 빠른 환경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세계의 단면을 포착하고자 하는 아카이브 체계로서,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삶과 흔적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쟁점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미시적 단위임에 주목하여⁵⁴⁾ 이러한 일상성에 대한 발견과 해석이 곧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기제가 된다.⁵⁵⁾

특히, 개인의 일상을 비교적 자연스럽고도 적극적으로 노출하려는 세태와 이를 타인과 공유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의 활성화 추세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미시적 일상의 기록들이 휘발되고 산재되지 않도록 하는, 소통의 기제로서 아카이브는 이들 개념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초보적 수준으로 개념화 하면 <그림 6>과 같다. 즉, 개별 아카이브가 생산·수집한 기록이 모여 하나의 아카이브 체계를 이루고 이를 일상아카이브 허브와 네트워크 체계로 구축하여 씨줄날줄로 빈틈없이 엮는 형태에 의해 광범위한 일상적 생활세계를 아우르는 전사회적 기록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6> 일상아카이브 체계 구성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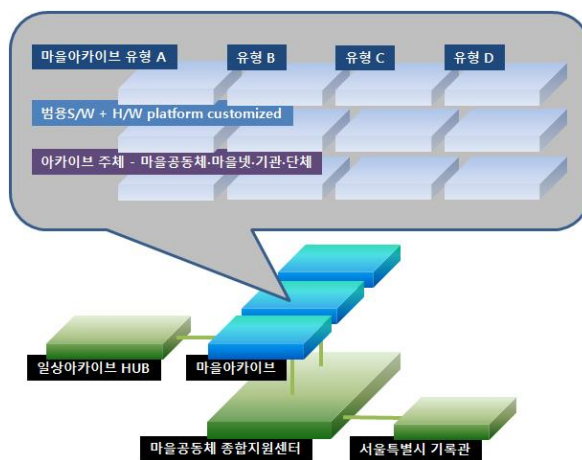


54) 이경준, 앞의 논문, 2012, p.8.

55) 박건홍, 「일상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2012년 명지대학교 인간과기록연구단 학술대회 ‘일상 아카이브의 방법론’, 2012, p.2.

한편, 다른 각도로 보자면 민·관 협력 거버넌스차원에서 개념을 구상해 볼 수 있다. <그림 7>에서는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개념화 한 것인데, 서울특별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종합지원센터의 지원하에 범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각 공동체 아카이브별로 커스터마이징, 공동체에 특화된 유형을 창출하여 아카이브 구축하고, 각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일상아카이브 HUB(가칭)와의 연결을 통해 전국 범위의 민간기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공기관 아카이브와의 협력체계를 갖는 구상이다.

<그림 7>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상



이와 같은 구상을 제시하는 이유는 규모에 있어서 공공기록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많이 만들어서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의도에서다. 그러기 위해서 아카이브의 운영방식, 목적, 대상기록의 특성 및 주체에 따라 그룹별로 협력체계가 마련된다면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며 활성화해 나가는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협력과 협조가 기반이 되겠지만, 협력체계를 기록화하고 장차 개별 공동체아카이브의 소장기록물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개별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기관 간 링크를 집적해 놓은 게이트를 구성하는 방법과 전산 시스템에 있어서도 통합을 꾀하면서 공동체아카이브의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는 기술적 측면이 S/W, H/W 면에서 고려되고 사생활보호, 인권침해차단,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보안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차 본격적이고도 심도깊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 또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취지는 공동체간 네트워크와 다르지 않으며, 공공기관에서 갖추고 있는 전산 인프라를 활용하는 측면과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두 축으로 상생 발전하는 형식적 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아카이브 간 협력체계, 공공기관과 공동체아카이브와의 협력체계는 향후 우리나라 기록관리 발전의 협력체계의 틀을 모색하는 단초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5. 맺음말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민간 기록관리 영역 중에서도 기업이나 NGO에 비해 일반인들의 일상을 담는 매우 소소한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아

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개인기록과 마을에서 맺어진 관계의 기록을 공적영역으로 옮겨놓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개인기록관리에 비해서는 그 규모와 범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소소한 기록들은 아카이브를 통하여 현대인들의 일상의 흔적을 집합화 하고 구조화 하여 새로운 지식정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들 기록과 기록을 담고 있는 아카이브는 국가와 제도와 법률이 하지 못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사회가 개발과 성장 위주의 급속한 외적 변화가 가져온 해체, 상실, 소외, 상처를 이겨내고 공존·공영, 인간성 회복, 배려,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지역의 민간 또는 공공도서관과 같이 체계를 갖추고 지식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활용하여 그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다. 기록의 주체와 특성에 따라 예술기록 아카이브, 소수자 아카이브 등으로 유형화 될 수도 있다. 마을과 마을 주민들의 삶을 그대로 집적하는 신문형태의 아카이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공동체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정신적 피로와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형 아카이브를 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서는 기존의 국가주도의 공적영역 기록관리와는 전혀 다른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법론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 이는 아카이브의 형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의 기능면에서도 수집, 정리, 분류, 평가, 관리, 활용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마을과 마을주민들의 규범과 지향 그리고 현실적 조건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실천을 도모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복원과 형성 그리고 사회적 모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극복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기존 공공영역 중심의 기록관

리를 민간영역으로 기계적으로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지평을 넓혀나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A Plan to Activate the Archive of Maeul Communities

Sohn, Dong-you·Lee, Kyoung-juhn

‘Maeul’ is a concept connoting a community. As a place where ordinary people’s lives are planned and realized, Maeul is the foundation of their daily lives as well as a place where they work, rest and enjoy pastime activities. In Korea, however, most Maeul communities are dismantled while going through the modern period representing colonization and developmental dictatorship. Growth-oriente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urned into such adverse effects as individualization, a sense of loss and a sense of alienation.

Recently, through innovations from below, Maeuls are restored, and through Maeul communities restored this way, every Maeul and many researchers carry out activities to build a healthy civil societ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such a background. For a healthy restoration of Maeul communities and a sustainable operation of those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rchives where record the trace of Maeul members’ daily lives and relations between those members. The archive of Maeul communities is a place that contains each Maeul’s loc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human relations as well. It is because this place can be space where Maeul members can record their histor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make a better future.

The archive of Maeul communities can be made into various different

models, which can be operated by reflecting the identity of a community such as main agents and characteristics, objectives and orientation of objects recorded. Rather than when Maeul communities exist as individuals, they can display more important functions and better effect when they form a network.

Therefore, it is needed to provide various and creative methodologi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government-led record management. Not only on the form of archives, but also all over their functions, such as collection, arrangement, classification, evalu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Maeul and Maeul residents' norms, orientation and realistic conditions should be thoroughly reflected.

Starting from a chance to look back at individuals' lives, the archive of Maeul communities will be a new chapter to restore and build a healthy community in our society and overcome social contradictions from below. Moreover, the archive of Maeul communities has a great significance that it will broaden its prospect creatively with a new paradigm, not only mechanically turning the existing public sector-centered record management into a non-governmental sector.

key words : Maeul, Maeul Archives, Maeul Communities, Archive of Maeul Communities, Larchiveum